

2024 하계 해외문화체험(베트남) 결과 보고서

영어영문학과 이준희

1. 참가 활동 내용 (사진 포함 가능)

해외여행이 처음인 나에게 이번 프로그램은 나에게 정말 꿈만 같고 너무나도 설레는 경험이었다. 그렇게 떠난 베트남에 대한 첫 인상은 매우 쉽고 혼잡하며 활기가 가득했다는 것으로 기억한다. 무지하게도 나에게 해외라는 것은 너무나도 와닿지 않아 우리나라와 똑같이 차선이 있고 건물이 있으며 한국 제품들이 들어와있다는 것이 새로웠다. 학교에서 해외문화체험으로 떠난 베트남 여행은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던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특히, 거리마다 넘쳐나는 오토바이는 베트남의 독특한 교통 문화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베트남에 도착한 첫 날, 공항에서 식당으로 이동하는 동안 수많은 오토바이를 목격했다. 베트남에 가기전에 베트남은 차보다 오토바이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듣기 했지만 실제로 보니 자동차보다 더 많은 오토바이가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차선이 거의 무의미하게 오토바이가 빼곡히 있었다. 처음에는 그 혼잡함에 압도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 숨겨진 질서와 조화를 느낄 수 있었다. 실제로 가이드 분께서 베트남의 오토바이 행렬은 '무질서 속 질서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박 5일을 겪으며 그 말의 뜻을 알게 되었다.

하노이의 오래된 거리에서부터 베트남의 미니 하롱베이인 난민까지, 오토바이는 베트남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교에 가는 학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일상을 사랑하고 있었다. 이 작은 탈것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베트남인에게 오토바이는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오토바이는 가족 단위의 이동수단이기도 하며, 상점의 물품 배송차이기도 하다. 특히 시장에서 오토바이를 가득 채운채로 장을 보는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다양한 용도를 사용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고, 심지어 작은 카페나 식당 앞에서도 오토바이를 타고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렇나 모습들은 오토바이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호치민 시내에서는 오토바이 택시, 일명 '그랩 바이크'도 흔히 볼 수 있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오토바이 택시를 부르고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시간 절약과 비용 절감 면에서 베트남인에게 큰 장점이 있다고 느꼈다. 실제로 자유연구 시간에

그랩 바이크를 이용해보았다. 처음엔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앉는 것이 어색했지만, 금방 적응했다. 도로를 자유롭게 질주하는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도시의 골목골목을 누비는 경험은 하노이 여행에서 가장 스릴넘치고 재미있었던 경험이다.

또한, 오토바이가 많은 베트남의 도로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사고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수많은 오토바이가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 안에는 나름의 규칙과 배려가 존재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이는 베트남 사람들이 오토바이에 익숙해지고, 그들만의 교통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간 신호가 맞지 않아 사고가 날뻔한 상황에서도 서로 웃으며 넘어가는 모습에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크게 느꼈다. 베트남인들은 전쟁국가로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끼리는 푹푹 뭉쳐 전우애, 동료애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들간에는 서로 이해해주는 문화가 자리잡은 것은 아닐지도 느낄 수 있었다.

베트남에서의 오토바이 체험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그것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였다. 학교에서의 문화 체험 여행을 통해 나는 베트남의 오토바이 문화와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삶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었다. 베트남의 활기찬 오토바이 도로를 떠올리며, 그 속에 담긴 삶의 에너지를 기억하고 싶다.

2. 참여 소감 및 향후 계획

이번 베트남 문화체험을 통해 나는 새로운 시각과 깊은 통찰을 얻었다. 특히, 베트남의 오토바이 문화는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혼잡하고 복잡하게만 보였던 도로에서, 나는 베트남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었다. 그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오토바이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서, 그들의 일상과 문화를 담고 있었다. 이처럼 오토바이를 통해 베트남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문화체험을 통해 얻은 경험은 나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로, 나는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 베트남의 교통 체계와 생활 방식을 직접 경험하면서, 다른 문화와 환경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둘째로, 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낯선 나라에서 다양한 상황에 부딪히며 문제를 해결하고 적응하는 과정은 나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은 베트남어가 있긴 하지만 내가 그나마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주로 소통을 하였다. 여기서 느낀점은 내가 어렵게만 느끼고 학문이라고만 느꼈던 영어가 조금은 편해졌고 일단 언어는 자신감으로 내뱉어야 되는게 맞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나라와 문화를 탐방하고자 한다. 베트남에서의 오토바이 체험 그리고 베트남에서 피부로 느낀 온갖 경험들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직접 경험하면서,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시각을 넓히고 싶다. 또한, 이번 여행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다문화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주최한 이번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 프로그램 덕분에 나는 베트남이라는 아름다운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며, 더 많은 배움과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프로그램 주관 기관 및 대학에 바라는 점

이번 베트남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저에게 매우 소중하고 뜻깊은 경험이었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국제학부와 가이드팀의 노력으로 베트남의 독특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4. 다른 학우 및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덥고 찌는 날씨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사유하고 경험하는 것은 누군가에겐 어려웠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한 나라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진정으로 재미를 느끼게 된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또, 고학번이지만 이런 문화 프로그램에 처음 참가를 해보았는데 진작에 왜 이런 해외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친구들, 후배들, 선배님들의 생각들 한 문화를 체험하고 대하는 태도들이 나에게 큰 반성과 존경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자유연구 시간동안 열심히 나를 따라와 주고 열심히 연구에 임해준 팀원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